

## 눈물·고성·몸싸움... 분노의 세월호 법정

광주지법,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 첫 재판 열려

유족들 진실규명·엄벌 요구 속 '살인 고의성' 공방

10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처음으로 열린 세월호 이준석(68) 선장 등 15명에 대한 형사 재판은 생애같은 자식을 잃은 가족들의 원망과 분노, 흐느낌, 울림 속에서 진행됐다.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는 이 선장 등에 대한 견집을 수 없는 분노를 드러내며 격렬히 항의하는 유가족들을 진정시키고 이해시키느라 재판부는 재판 진행 내내 진땀을 뺐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은 사건 쟁점을 파악·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공판준비절차에 따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임에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수백명의 취재진과 방청객이 법정 안팎에 몰렸다.

재판부는 재판의 중요성을 감안, 이 선장 등이 입장하기 전 이례적으로 3분간 사진촬영을 허용했다.

재판은 시작 10분 전부터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일부 유가족은 법정을 찾았다가 방청권 제시를 요구하는 법원측과 몸싸움을 벌였는가 하면, "보호할 사람을 보호해야지 인간도 아닌 것들을 보호하냐"며 분노하기도 했다.

오후 2시를 넘기면서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 재판부가 입장, "2014고합180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시작합니다"라며 재판 개시를 알렸다.

KIA車 쏘을 미국서 잘나간다 ▶8면  
순천만정원 인기비결 3가지 ▶11면



홍명보호 가나에 0-4 참패 ▶20면

**광신대학교**  
사랑과 감사의 60년  
1954  
60th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임 부장판사는 재판 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고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가족들의 분노 등을 감안,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피고인을 향해 고성을 지르거나 욕을 하는 행위 등을 자체 해줄 것을 요청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이준석 선장 등 15명의 피고인이 들어서면서 법정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원쪽 가슴에 '4011'이라는 번호가 붙은 노란색 반팔 수의를 입은 이준석 선장을 시작으로 15명의 피고인들이 차례로 들어오자 방청객 곳곳에서 "이 살인자", "참 씩씩하게 들어오는구나", "밥 잘 먹고 있냐. 우리 가족은 죽었는데...", "당신 자식이면 그렇게 할 수 있냐",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등 분노가 섞인 고성이나 욕이 터져나왔다. 일부 피고인 중 웃는 듯한 표정을 지은 것을 본 유가족은 "웃음이 나오냐"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다시 한번 "나도 고등학교 자녀를 키운다. 이해하지만 자제해달라"며 유가족들을 재차 증인석으로 불러 앉히며 이해를 구했다.

피고인 중 3등 항해사 박모(여·25)씨는 입장 뒤부터 끊임없이 울었고 대부분의 피고인은 고개를 숙인 채 유가족들의 시선을 피했다.

피고인들이 입장한 뒤 피해자 의견 대표 진술에 나선 김병권 유가족 대표는 "유가족들은 현실 같지 않은 현실에 살고 있다"며 "그들은 사회 신뢰, 가족들의 영혼까지 죽었다"며 철저한 진실 규명과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김 대표 발언이 마무리된 뒤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 신문이 이어졌고 이후 주임 검사인 박재익 강력부장은 20여분간 사건 전체의 성격을 정리한 논고성격을 띤 모두 진술과 기소 취지 진술을 진행했다. 박 부장검사는 공소 사실을 말하면서 복받친 감정에 목소리가 떨리는 등 힘겹게 말을 잇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그러나 검찰의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그렇지만 위치가 있지 않다", "나름의 구호조치를 했다", "과실 이상의 이상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향후 재판의 지열한 공방도 예고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재판정 가는 이준석 선장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재판이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구치장에서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시도지사·국회의원 '국비 확보戰'

광주 - 강운태 시장 없이 윤장현 당선자 나홀로 참석

전남 - 박준영 지사·이낙연 당선자 손잡고 공동 행보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와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자가 '발등의 불'인 2015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윤 당선자는 강운태 시장과 동반 없이 단독으로 참석한 반면 이 당선자는 현직인 박준영 전남지사와 공동 전선을 펼치기로 해 대조된 모습을 보였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 국회 의원회관 2층 의원식당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와 광주지역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윤 당선자는 "선거 결과는 개인의 승리가 아닌 새로운 광주를 열고자 하는 열망"이라면서 "광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 등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의미 부여와 함께 앞으로 시정 운영 방향, 국비예산 지원 논의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거론하는 등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현직인 강운태 시장은 윤 당선자측의 동행 제안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비확보는 현직시장과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관례"라면서도 "다만, 윤 당선자측에서 이번 선거로

인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강 시장의 관계가 불편해진 점을 감안해 동행을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도는 박준영 도지사과 이낙연 당선자가 함께 국회를 찾아 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여·야 정치인들을 만나 국비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 당선자는 11일 오후 서울에서 열리는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간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도 국비지원 예산 행거기에 나서 계획이다. 이 당선자는 특히 박준영 지사와 함께 간담회에 참석, 국비지원 예산 확보 등 국정현안을 국회의원과 협의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 당선자는 "내년 국비지원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와 지역 국회의원 간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원활한 소통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 등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가 4선 관록의 국회의원인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는 물론 여·야를 넘나들며 전방위 국비 확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2015년 국비지원 예산으로 각각 141건 3조2617억원, 231건 4조85155억원을 정부 부처에 요청한 상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총리 문창극·국정원장 이병기 지명

박대통령, 여론검증 관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새 총리 후보에 문창극(66)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하고 국가정보원장에는 이병기 주일대사를 내정했다.

문 총리 후보자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서울고교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중앙일보 주위싱턴특파원과 정치부장, 논설위원 실장, 논설주간, 주필, 부사장대우 대기자 등을 지낸 뒤 고려대 미디어학부 석좌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문 전 주필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리에 오르면 역대 두 번째 언론인 출신 총리가 된다.

박 대통령이 고심 끝에 새 총리를 내정함에 따라 내각 및 청와대 개편도 곧 뒤따를 전망이다.

개각은 16일부터 시작되는 박 대통령의



문창극 후보

이병기 후보

순방 이후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사인 이병기 주일대사를 국정원장에 내정함으로써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이은 외교안보라인의 두 축이 완성됐다. 외교관 출신으로 은근파로 알려진 이 내정자가 국정원장을 맡음으로써 군 출신인 남재준 전 원장 때와는 달리 대북관계가 유화적으로 바뀔지 여부도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삼성자동차(주) 광주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신성자동차(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C 200 1,991cc, 1,5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8.0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44g/km • C 200 Avantgarde 1,991cc, 1,5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8.0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44g/km • C 220 BlueTEC Avantgard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단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11g/km • C 220 BlueTEC Avantgarde with Passivacoustic sound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단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11g/km • C 220 BlueTEC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단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1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